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3호관 312호 T. 062-530-5218 F. 062-530-5219

HK3.0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개인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리질리언스, 다학제적·융복합적 관점 고찰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3.0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은 2025년 12월 5일(금) 09:30~17:00까지 인문대1호관 106호에서 <개인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리질리언스 연구 지형도>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개인과 공동체라는 두 차원을 중심으로 리질리언스를 다학제적·융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 것으로, 사회과학 중심의 리질리언스 담론을 인문학적 사유와 연결함으로써 전환적 사고를 촉진하고, 새로운 삶의 감각과 공동체적 재도약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체 리질리언스와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연결망과 시민참여, 돌봄의 생태계, 서사와 치유, 취약성과 관계적 회복력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리질리언스의 의미와 실천의



지형을 새롭게 조망하고, 위기를 넘어서는 사유와 상상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HK3.0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구축

교토 도시샤 대학 코리안 연구센터·대만 국립정치대학 등 방문, 학술 및 인적 교류 활동



우토로 아트 페스티벌 사진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3.0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은 2025년 10월 10일(금)~13일(월), 2026년 1월 27일(화)~30일(금) 두 차례에 걸쳐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24년 일본 우토로 평화기념관 방문과 교토 소재 리츠메이칸 대학 워크숍을 토대로, 교토 도시샤 대학 코리안 연구센터와 인적·학술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구축하였다. 또한 인문학연구원은 이 교류를 통해 우토로 평화기념관이 추진하는 2025 우토로 평화 아트 페스티벌의 협력 단체로 등록하여, 예술·연구·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토 일원의 재일조선인의 이주 및 평화 운

동 관련 리질리언스 연구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26년 1월에는 대만 타이베이 일원에서 1단계 1차년도 동계 글로벌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동계 워크숍은 인문학연구원이 HK3.0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 선정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원의 학문후속세대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은 1월 28일(수)에 대만 국립정치대 한국어문학과와 상호 기관 소개 및 교육,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학문후속세대 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양 기관의 학술 네트워크 및 인적 교류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영상 콘텐츠 공모전, 인문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다양한 현장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3.0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은 현장 중심형 다양한 연계 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전남대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10일~28일에 걸쳐 <커뮤니티 역사문화자원 큐레이팅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본 공모전은 내가 사는 커뮤니티의 숨겨진 가치와 역사를 발견하고 수집하여, 함께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 출품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전체 15개 팀이 출품한 가운데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을 선발해 시상하였으며, 대상팀은 <전남대, 광주와 청년들의 시간을 잇다>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 구도를 엮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인문학연구원은 전국 최초 인

문학 기반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인문커뮤니티역량지도사> 예비 인증 프로그램을 9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하여 전 과정을 이수한 35명이 수료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26년 1월 8일~2월 26일에 걸쳐 2급 자격과정을 운영하여 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 출판기념회 및 간담회

구술생애사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 번역서 『리질리언스 구축』 리질리언스 총서 2권 출간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2025년 12월 22일(월), 오후 6시 광주 남구 어반브룩에서 광주 서구 동천마을 여성들의 구술생애사 도서 『동천마을 여성들의 삶과 리질리언스』의 출판기념회 및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도서 발간은 인문학연구원이 수행 중인 HK3.0 <가족커뮤니티인문학을 통한 플루리질리언스 패러다임 구축> 아젠다의 일환으로,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인문학적 지식을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 얻어낸 값진 결실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주민의 긴밀한 협력이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와 함께 HK3.0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은 일레인 밀라-카라스가 지은 『리질리언스 구축 -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모델과 트라우마 리질리언스 모델』을 번역총서로 출간하였다. 본 저서는 사업단 일반연구원인 김도현 박사가 번역한 것으로 플루리질리언스 아젠다의 이론적 토대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기획되었다. 본서는 최신 신경과학에 기반한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모델과 트라우마 리질리언스 모델이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트라우마 회복이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에 걸쳐 사회적·관계적 맥락 속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역자는 본서가 단순히 트라우마 치유 모델을 소개하는 안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수치심과 병리학'의 틀에서 '희망과 생물학'의 틀로 전환하도록 이끄는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HK3.0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 36~39차 콜로키움 개최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3.0플루리질리언스사업단은 25년 9월부터 12월까지 36~39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은 인문대학 1호관 313호 현공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36차는 한홍구(성공회대) 교수가 「한국현대사와 회복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국가폭력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 민중의 놀라운 회복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에서 '리질리언스'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고, 37차는 원재연(인천대) 교수가 「생태·환경 리질리언스의 관점으로 본 인문학에서 '리질리언스' 연구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생태·환경 분야에서 리질리언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감응·소통·연대·공생·기억이라는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리질리언스'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뒤이어 26년 38차 콜로키움은 김연민(전남대 영문과) 교수가 「갈등의 전환 : 포스트-갈등 시대와 문학의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식민지배, 분단 그리고 종파주의 폭력의 '기억'들이 참여하게 경쟁·대립하는 등 '정치적 측면'이 일상을 잠식하는 아일랜드 문학의 사례를 매개로 지금-우리 시대의 '갈등의 전환과 회복' 방식을 고찰하였다.

39차 콜로키움은 유인태(전남대 중문과) 교수가 「데이터 액티비즘과 리질리언스」라는 주제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 데이터 프로세싱 연구가 하나의 실천으로서 인류의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유관 사례와 이론을 통해 살펴보는 논의를 펼쳤다.